

북한이탈주민의 노년의 삶 경험 연구*

배 미 랑¹⁾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노년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남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1명과 2021년 3월부터 면담을 시작하여 8월까지 일대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19개의 의미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이 가운데 51개의 구성 의미에 따라 16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군으로 분류되었다. 5개의 주제군은 각각 ‘힘들었던 지나온 시간’,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나날들’,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기’, ‘순응하는 현재의 생활’, ‘삶의 만족과 미래의 무망감’으로 제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에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생계비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겼다. 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며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경제능력이 없는 노년에도 생계비를 아껴 북한으로 송금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북한의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워 답답해하며 자신의 생전에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낙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노년기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노인, 삶, 질적연구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2020S1A5B5A17087610).

1)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강사 (E-mail: mirang314@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량적인 탈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2017년에 3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량의 탈북 이후 3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고령화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9월 말 기준 33,800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이 중에 60대 이상이 11%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21). 남한에서의 고령화추이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2004년부터 2013년 동안 노인인구 증가비율은 OECD 2.11%, 국민전체 3.55%, 북한이탈주민 3.63%로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기채, 고혜진, 박정순, 김예슬, 한경훈, 2017). 노후를 맞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노년기에 들어선 북한이탈주민은 20~30대의 젊은 층에 비하여 남한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며 남과 북 그리고 3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허옥희, 2019). 또한, 사회참여의 어려움과 감소는 중년기 때와는 달리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 노인들은 경제적 어

려움과 더불어 삶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체, 심리, 정서적인 건강악화나 역할상실로 적응과 극복이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다가 노년기에 들어서고 노후에 대한 인식이 남한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은 절반 이상이 생계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남한사회는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고령의 탈북자들은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없거나 짧아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보장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과 소득중단으로 빈곤상태에 처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조성희, 김정귀, 2021). 노인들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노인의 4고에 더하여 북한이탈노인들은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그들을 돌볼 자녀조차 없는 상황일 가능성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의 가중 등이 추가되어 낯설고 새로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이금순 등, 2004). 가족이 동반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들도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일정 소득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파악되지만 고령 북한이탈주민이 활용도가 그리 높지는 않아 실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서운환, 정순돌, 2012). 성별이나 연령별로 분반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력·자원 등의 한계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경력·학력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하여 고령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민기채 등, 2017). 즉, 고령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공적 지원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에 주목하고 있고, 노인 스스로의 당당한 정체감과 삶의 역할에 대한 능력을 재정립하여 생산적이고 보람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인식과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김수현, 2013). 그래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김희경, 2012; 박순미, 2011; 배나래, 박충선, 2009;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2010; 정순돌, 이선희, 2011; 최현석, 하정철, 2012). 이에 반해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정착, 자립의 적응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고령층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으로는 김승용(2005), 정순돌, 김고은, 박지혜(2015), 정순돌, 박지혜(2014), 이현주, 오보람, 이은혜(2009), 민기채 등(2018), 허옥희(2019)의 연구가 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정부지원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연구들로서 연구 분야에서 제한적이며 특히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허옥희, 2019). 최근 중·고령층에 대한 연구로 허옥희(2019)의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인식에 대한 탐

색 연구가 있고, 현재 노년기를 맞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에서는 전체적 삶의 구성, 삶의 만족, 노인인식에 대한 경험, 고령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북한과 남한의 제도와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노인들의 노년의 삶을 그들의 시각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깊게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령사회(post aged)에 진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노인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좀 더 만족스런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노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제도적 개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목적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보내는 노년의 삶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 과정은 남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연구자가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들로부터 직접 추천받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의 실무자를 통해 추천받은 자로, 그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대상자들로 11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가운데 남한에 입국할 당시에 이미 65세 이상인 자가 5명이었고 현재 혼자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대상자는 7명이었다. 그리고 현재 모두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대상자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 면담 전에 서로 연

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확장하였고, 심층 면담 실시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다. 1차 면접은 120분 가량 소요되었고, 2차 면접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참여자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 면담 시작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구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면담 과정과 소요시간, 녹음 등의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녹음한 내용은 비밀 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되어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어떠한 질문이나 의문에 언제든지 답변하고, 불편하다면 중간에라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 어떠한 불이익 없이 면접 과정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전화나 면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거주형태	남북학력	북한직업	남한거주
참여자1	여	73	남편, 손자동거	중졸	사무직	15년
참여자2	여	74	남편, 자녀동거	초등	농부	17년
참여자3	여	82	독거	고졸	이발사	18년
참여자4	여	78	독거	대졸	교사	10년
참여자5	남	81	아내동거	대졸	영화배우	12년
참여자6	여	77	독거	고졸	부양	10년
참여자7	여	69	독거	고졸	농부	9년
참여자8	여	79	독거	초등	재봉사	8년
참여자9	여	67	독거	대졸	노동자	11년
참여자10	여	74	독거	고졸	주부	11년
참여자11	여	81	남편, 손녀동거	초등	주부	12년

접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면접 내용은 연구결과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다.

참여자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남한에서 보내는 노년의 삶은 어떠한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는데 먼저 그들이 살아온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이어 “남한사회에서 보내는 노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참여자의 개별적 진술에 따라 후속질문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참여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과 답변에 따른 격려와 지지로 심층 면담을 이어갔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였다. 중국을 거쳐 남한에 오기까지 그들이 겪은 고통과 남한에 와서의 삶의 경험을 들으며 공감 반영하여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삶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하였다.

면담 내용은 가능한 바로 필사하여 면담의 생생한 내용과 의미를 참여자의 언어 표현 그대로(verbatim) 옮겼고, 면담 도중에 작성한 연구자의 메모를 함께 기록하여 면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필사 도중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나 다음 면담에서 보충 질문으로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재 남한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년의 삶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Colaizzi의 6단계 분석 과정을 활용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을 살펴 보면서 중복된 표현은 제외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때 진술이 현상학적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지 고려하였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군(theme cluster)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주제와 주제군에 따라 경험의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분석된 현상의 공통적인 주제들을 통합하여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를 현상학적 글쓰기로 완성하였다.

연구결과와 엄격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 & Guba(1985)의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사실적 가치, 즉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진실성을 위해 충분히 사전 관계를 형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대화로 참여자의 자기 개방을 격려했다. 수집된 자료의 사실적 가치를 위해 녹음 내용과 필사본을 반복해서 검토했다. 다음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는데 연구결과가 대표성을 띄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번째로 조사대상의 성질을 일관성 있게 다루는지를 초점으로

두어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에 세세한 노력을 기울였고,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따른 신뢰성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및 상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참여자 중 1인을 통해 참여자 검증(member check) 과정을 실시하여 도출된 주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노인 연구에 대한 편견, 가치, 지식, 생각, 가정, 판단 등을 미리 메모하고 인지하여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자 연구 과정 내내 노력하였다. 또한, 추

측 가능한 답을 유도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감하고 경청하기를 노력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분석결과 총 119개의 의미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이 가운데 51개의 구성의미에 따라 16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군으로 분류되었고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북한이탈주민 노년의 삶 경험 탐색

주제군	주제	구성된 의미
힘들었던 지나온 시간	빈곤과 굶주림의 북한 생활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없이 굶주렸던 날이 계속됨 자식의 굶주림을 볼 수 없어 도강하게 됨 결핵으로 폐가 망가져도 치료를 못함
	남한에 오기까지의 고난	복송되어 고초를 겪고 다시 중국행 선택 중국에서 잡힐까 두려움에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지냄 고향떠나 몸과 마음 고생이 깊어감
	주변의 불편한 시선	고쳐지지 않는 북한 말투로 인해 힘들었음 남한 사람들의 텃세로 인한 불편함 북한 사람을 싫어하는 남한 사람들과 단절함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나날들	북한 노인의 삶 추억	북한에서 노인의 질병과 곤궁함은 당연함 배급도 없어 자녀도 힘든데 자식 의지해야 하는 고달픔 빈곤함으로 자녀 혼인도, 장사도 생각 못함
	북한 가족을 향한 그리움	북에 남겨진 자식을 그리워함 전화통화로 자녀 소식 접함
	보고픈 자식 기다림의 연속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식을 향한 기다림 지금이라도 남한행을 돕고 싶은 부모 심정 자식이 부르는 환청으로 잠 못자는 날들

표 2. 북한이탈주민 노년의 삶 경험 탐색

(계속)

주제군	주제	구성된 의미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기	가족을 향한 애뜻함으로 송금	북한 자식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몸부림 송금을 요구하는 자녀 외면할 수 없음
	남한에서 맞는 불안정한 노후	손자의 지원을 물리고 생계비로 노후를 지탱함 홀로 병들어 그나마 병원에서 세끼 식사를 해결함 손녀를 돌보는 노년의 고생이 계속됨 가족에게 송금을 위해 노년에도 일해야 하는 중압감
	가족을 위한 희생	손주와 더불어 가족 챙기는 역할로 고달픔 병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 아픈 딸을 돕느라 피곤함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위한 끝없는 노력
순응하는 현재의 생활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홀로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움 주변에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보며 외로워함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병마에도 목숨을 부지함 죽어도 볼 수 없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잊으려함
	경제적 어려움 수용	많은 병원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됨 적은 생계비지만 친구들 관계를 위해 비용을 사용함 생계비를 쪼개서 자식에게 보태줌
	코로나로 침울한 나날들	소수만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나날들 가족과의 연락도 어렵고 송금도 불명확하여 답답함 병원에서 격리되어 홀로 외롭게 보내야 했던 우울한 날들
삶의 만족과 미래의 무망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남한에 온 가족이 함께 있어서 안심하게 됨 자식과 함께 손주를 보며 노후를 보내는 행복 자식이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편안해 함 부부라도 함께 해서 든든함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	병들고 쓰러져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함 국가 지원으로 평소 건강 관리해 줘서 든든해함 무상으로 병원 치료가 되어 매우 만족함 지속적인 병원 진료와 약 복용을 챙김에 감사함
	만족과 감사의 생활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탈북민 지원센터 교육에 감사함 생계비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함 마음 놓고 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 감사함 의식주 걱정 없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함
	통일에 대한 낙담	낙후된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하는 통일에 대해 걱정함 죽기 전에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 보기를 갈망함 신경증이 생길 정도로 간절했던 통일의 꿈이 멀어져 감

1. 힘들었던 지나온 시간

빈곤과 굶주림의 북한 생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삶의 기본인 의식주 문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려고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고난의 행군으로 바뀌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의 굶주림과 빈곤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다.

“우린 죽은 목숨이나 같지요. 불쌍하지요. 거기야 뭐 이런 과일을 하나 먹어보겠어요? 밥이 뭐 한 그릇 제대로 먹겠어요? 뭐가 있어요, 불쌍해요. 우리 북한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참여자3)

“쭉 같은거는 한 하루종일 이틀을 우려야 독기 다 빠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조금 써서 이렇게 단 거 Ying 해서 써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날짜를 못 맞추고 그냥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 아 우리 두 아이가 다 부어서 그 독을 빼지 못해서 통통 부어가지고.” (참여자6)

“원래 배급 아니 주는데 굶어 죽으니까 살았지. 거기서 살래야 살 수 없는 거예요.” (참여자7)

“쟈들은 한창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시집 보낼 때 배급쟁이들이 배급 아이 주

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년은 배급 아이해주니까 죽겠더라.” (참여자11)

남한에 오기까지의 고난

탈북한 이들은 중국에서 숨어 사는 두려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다시 잡혀 들어갈까봐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지내다가 누군가는 다시 잡혀서 복송되어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어딘가에 머무는 가족을 찾아, 굶주림 없는 새로운 세상을 알았기에 또다시 탈북하는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흩어진 가족의 생사를 찾아 헤매고, 가족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기도 하고, 병든 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국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엔 한국행을 선택하고 한국에 오기까지 또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만 했다.

“북한에서 저기 두만강을 건너자면 돈을 여선비를 많이 내라 합니다. 여선비 1전도 없는데 어떡하겠어. 다 데려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사람들 다 자기네 여선비 받아야 된다매. 그래 갔는데 거 그해 팔려간 게 심양 어디지.” (참여자7)

“중국에서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1월달인지 그때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때 병원 갈 형편도 못되지. 우리 아들이 무슨 페니실린 사러 가는데 없지지. 깜짝 앓았지.” (참여자1)

“두 번 잡혀 나갔지. 나갔다가 또 들어와다가 그다음에 잡혀 나갔지. 그래 뭐 그

저 한 3년 고난의 행군하다가 중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참여자2)

“저도 정말 복송 되가지고 영양실조 걸려 죽는다, 산다하면서 했는데, 내가 그때 중국에서도 많이 아팠어요. 아들들이 붙잡혔단 소리 듣고 병이 악화되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참여자9)

“중국에 와서는 무서우니까 다 각기 헤어져서 그저 살았지. 아내는 중국 와 죽었어요.” (참여자5)

“라오스 산 넘어서 올 때만 해도 너무 숨차고 너무 아프고. 원래 심장 좀 약했으니까.” (참여자10)

주변의 불편한 시선

생의 초기부터 중기, 어쩔이들은 노년기 시작까지 북한에서 살아왔기에 삶의 뿌리가 터전이 바뀌어 노력한다고 해서 쉽고 빠르게 남한에 동화되기란 쉽지 않아 말투도 남한 사람과 달라 항상 이방인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10여 년이 지난 노년에도 어떤 때는 남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고 불편을 겪는 일들이 여전했다.

“여기 사람들과 만나면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땐 말이 갑자기 북한말이 나오니까 말하기 좀 그렇지. 말(어투) 바꾸기 진짜 힘들어.” (참여자1)

“좀 나이 든 사람들 텃세를 쟤단 말입니다. 밥먹는 데 가서 이리 의자 있지. 의자 있는데 이리 앉잖아. 풍덩 이래 앉기 전에 의자를 빼. 없이 먹어 서리 뺏어 저 가져가지. 저네 앉아.” (참여자7)

“내가 북한에서 왔다니까니 그래 아휴 난 북한에서 오는 것들 다 뵈기싫다, 이러더라구. 북한에서 왔대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남한 늙은이도 만나지도 않았어.” (참여자8)

2.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나날들

북한 노인의 삶 회상

북한에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만 의지하며 생활해야 하는 게 자식에게 짐이 되고 노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어 삶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병들어도 병원 치료나 약은 생각도 못하며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처절한 모습을 회상하였다.

“북한에서는 노인이건 젊은이건 뭐 하나 대우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식들 있는 집들은 자식들이 나가 장사해서 먹고 자식들하고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냥 이제 그 자녀들이 나가서 뭔가 벌어오면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참여자1)

“자식들도 뭐 못 먹고 사는데 늙은이들이 뭐 병원에 가도 그저 아이고. 그저

잘 먹고 계시면 되겠어 그제. 그래, 뭐 거기 약이 있어요? 늙은 사람들 뭐. 병원도 약이 없어서 장마당 가 사다 먹으라 그래요. 나 있을 적엔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더하죠.” (참여자3)

“거기는 50세면 벌써 노년 보상받는데. 나이 많으니까 어디서 받는 데도 없고 북한에 있으면 70대에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늙은이라고 무슨 배려를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여자4)

“우리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살아 무슨 골방에서 나오거나 하겠어요? 손자, 손녀나 보고 집서 뭐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았지.” (참여자9)

북한 가족을 향한 그리움

북한에 남겨진 자식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며 겨우 강냉이 죽을 끓여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힘들었던 시절 저세상으로 떠나 보낸 자식과 북에 남겨진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먼저 중국에 나갔던 자식이 북에 잡혀들어와서 부모인 자신을 데리고 중국행을 했던 그 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아내고 있었다. 이젠 나이 들어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더는 돈을 보낼 수 없다며, 몇 날을 고생하며 두려움을 헤치고 부모의 송금을 기대하며 전화 통화하러 왔을 북한의 자식에게 마냥 헛걸음하게 해야 했던 자신의 상황을 한없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그것(막내 자식)까지 봤으면 걱정이 없겠는데 그게 있어서, 그게 걱정이야. 이제 막내만 와버리면 좀. 그것만 왔으면 근심이 없겠는데. 그게 내 걱정이지.” (참여자4)

“그저 옥수수를 조금 강냉이를 구해서 가루를 해서 그제 나무를 썰어 영고. 그제 죽을 썰먹고. 나 그래 죽이 세나가지고 죽을 아이 좋아해.” (참여자11)

“한번 내하고 전화통과 하자면 한 3일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연중도 없이 그제 주먹밥 하나 그제 싸가지고 오면 다 행이고. 거기까지 가자면 참말 험난하게 가야 되는데 꾀걸음 시켰다는 게 영 가슴 아프지.” (참여자6)

“동생은 그래도 잘 살아요. 북한에서. 애(아들)도 좀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들들이 북에 잡히면서는 그 후에 또 잡혔다가 아들들이 나 데리러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같이 살다가 아들들 한국 보내면서러... (사진을 가리키며) 요건 우리 큰 손자. 맨날 사진이라 그래도 북한에서 보내왔더라구요.” (참여자9)

보고픈 자식 기다림의 연속

먹고 사는 것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말없이 사라져 버린 자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찾아 헤메었던 시간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오겠다는 자식이 북한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기약 없는 자식과의 해후를 고대하며 지금이라도 남한에 올 수만 있다면 더이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노년의 삶인데도 어떤 상황에서든 돈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엄마를 부르는 환청을 들으며 이제는 남한에서 더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사는데 정작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오겠다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투하해서 데려오겠다, 오겠나 이러니까는. 그건 좀 돌아내 보고 생각해 보고. 아들(손주)이 군대갔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떼어두고 오기가 그래서.” (참여자4)

“내가 딸을 북한에서 그제 행방, 잊어버린 걸로 알았거든. 그냥 사라져버렸지. 그러니까 나는 죽을라 갔나, 어디 갔나 계속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지.” (참여자6)

“그때로부터 그제 아들 둘 한꺼번에 잊어먹고는잉. 그제 이거 뭐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구 이케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잉. 야 이거 어디가서 얼어 죽지 않는가. 굶어 죽지 않는가. 그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밤에는 그제 울다간잉. 잠 못 자구.” (참여자7)

“북한에서 아들 둘 야들이 먼저 나왔어요. 조선을 뚫어요. 너네가 가게 되면 나는 어떡하나. 그러니까네 이 야들이 엄마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엄마

와서 데리고 갈게. 그래서 그제 거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오겠는가 하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찾아 나섰어요.” (참여자8)

“그제 엄마 엄마 하고 나를 문을 열고 부르는 거 같고. 그리고 밤에 초저녁에 조금 자고는 부엉이 우는 소리랑 까막까치랑 다 다른가 했어. 내 그렇게 얼마나 우둔하오.” (참여자11)

3.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기

향한 애뜻함으로 송금

북한에 남겨진 자식을 위해 자신은 옷 한 벌 못 사 입고 악착같이 한푼 한푼 모아 돈을 보내는 것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애뜻함이 전해졌다. 자식이 집을 사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고, 북한의 자식이 힘들다며 돈을 보내 달라는 말이 내내 걸려 또 천원을 벌고, 또 천원을 벌기를 거듭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돈 보내 달라고 전화 오면 그제 돈이 없지, 없으면 그 빵 파는 집에 가서 천원, 천원, 천원. 그래서 한 3천, 4천 만들어서... 내가 그 대신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 그래 돈 계속 보내줬어. 그게 3년 전에. 야, 니가 이때까지 내가 돈을 보내, 크게는 못 보내줘도 부시럭 돈을 보내줬는데.” (참여자6)

“제일 작게 보내주는 거 백만 원씩 보내줬어요. 계속 악착같이 벌어서 나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남의 옷 버리는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이러구 댕기고 거기다 돈 다 보냈어요.” (참여자3)

“돈 하나가 있으면 돈 도로 북한에 보내 보냈어. 아들, 딸래미 집 못 사서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내가 그래.” (참여자10)

남한에서 맞는 불안정한 노후

살고자 남한에 와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챙겨야 할 가족이 우선이었기에 정작 일하기도 여의치 않은 힘없는 노년의 삶이 삼시 세끼 밥걱정은 벗어났지만 아플 때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나마도 병원이 자신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또 남한에서 자녀를 돕는 것은 병약한 자신이 손자들을 돌보는 일이라 말하고 북한 가족을 위해 죽을 때까지 일하고 돈 벌어야만 하는데 쉽지 않아 노년의 삶이 버겁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 한 숟갈을 먹어도 먹잖아요, 하루 세끼. 여기 병원 음식이 안맞는다 해도. 집에 오니까 일어나야 밥을 해 먹지. 그래서 자꾸 꼬꾸라지니까. 여기 뭐 친척이 있어요, 뭐 있어요?” (참여자3)

“초등학교 1학년 손녀 데려가고 데리 오고 해야지. 주말에는 (손주)엄마가 데리

고 가요. 재 일 다녀야 되니까 여기다 맡겨 놓구. 늣둥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나를 고생시키지. 제 새끼 다 키워 놓구 이제 시름놔야 되겠는데.” (참여자4)

“나는 아무리 수급자래두 내가 아무래두 죽어두 나는 일은 해야겠으니깐나 나한테는 어깨가 무거워서. 중국에두 돈 보내구 북한에두 돈 보내야 되는데 내가 한 달에 요거 생계비만 타 가지구 못 산다.” (참여자8)

“노년 문제지. 지금 65세만 지났다면. 계속 생계비 같은 거 받으면 그거는 대강 살기는 살지만.” (참여자1)

가족을 위한 희생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된 탈북 이후 남한에서도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고 병든 딸을 먼저 챙겨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두고 온 자식들을 위해 끝까지 돈을 모아 송금하겠다고 희생에 마다하지 않는 그들도 남한의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다.

“드문드문 거기에 가서 (손주)에비 또 반찬도 나도 또 거 갖다 줘야 되니까. 야 (손주) 없다면 나 몰라라 하겠는데 야 있으니까 거기 또 혼자 사는 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어. 그제 내, 나로선 또 그것도 거둬 줘야 되겠길래 그제 현재까지 그렇게 살고.” (참여자11)

“아픈 우리 딸네 집에 갔다 오면 피곤해. 피곤하죠. 거기가면 자지 못하고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데. 그제 피곤해요.” (참여자1)

“딸이 맨날 아프고, 나도 아픈데도 북한에도 돈 보내야 되고. 중국에도 돈 보내야 되고. 중국에두 아새끼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참여자7)

4. 순응하는 현재의 생활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어느 순간에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주변에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며 쓸쓸하고 외로워하였다. 그리고 그들도 병들고 힘없는 노년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영영 만나지 못하는 자녀와 자신이 서로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우울함을 안고 살아내고 있다.

“이제 내가 죽음 임박해도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 알겠는지, 요양병원에 갔다 쳐넣겠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 이제는 죽을 때 어떻게 죽겠는가, 그게 걱정이에요.” (참여자4)

“내 7년 동안 여기 와서 살았는데 한 10명도 더 죽어 나간 거 같아요. 자살해 죽는 걸로 뭐. 친척, 부모들, 자식들 돌봐주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있지. 그래서

딸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이젠 잊어버렸지 뭐. 죽은들 오구 뭐 어떻게 하겠어.” (참여자6)

“폐가 제 기능 바로 못 하니까 항상 피곤해요. 하여간 계속 이렇게 목숨 부지한 것만 해도 큰 성과죠. 정말 병이 막 너무 시달리니까잉. 정말 죽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막 고져 이렇게.” (참여자7)

“여기에 혼자서 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 자식들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어 자식들한테 부담 안 끼치고 거 별 별 기어 땡기면 아이고 어떡해요.” (참여자8)

경제적 어려움 수용

남한에 와서 먹고 살고 돈을 모아 북한 또는 중국 자식들에게 송금하고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느라 브로커 비용으로 쓰기 바빠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까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계비로 노년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병마가 닥치면 큰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하기엔 역부족이다.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담아 나눈다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고, 생계비에서 조금이라도 떼어서 모아야 하는 생활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일상으로 이젠 익숙하게 살아내고 있었다.

“병원비도 물론 그렇고 때로부터 돈이 딸린단 말임다. 병원, 큰 대학병원을 가야 할 교통비 값이 없어. 널 돈이 없단

말입니다. 검사비 본인이 약간씩 부담했단 말입니다. 갈 때마다 가 12만, 13만. 또 9만 이렇게 물고. 이러면 그다음에 생활비 딸린단 말이야. 교통비도 없고.” (참여자7)

“일할 형편도 못되고 그냥 생계비 딱 요기 얹매 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나라에서 쌀을 주지. 뭐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니까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지금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모다야 그래도 내가 자식들 있는 대로 보태줄 수 있다고..” (참여자9)

“무슨 쌀 주지, 구청에 있나 그러니까 생계비 그 돈 쓰고 보면 어떤 때는 친구 들하고 바쁘니까 누구 생일에도 가고프고, 우리는. 그 북한사람들은 그래요. 생일에 가면 돈 얼마, 서로 갔다 또 서로 이렇게 내고.” (참여자10)

코로나19로 침울한 나날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소소한 모임의 수가 줄고 병원 갔다가 격리 상황에 처해 혼자 울며 보내야 했던 날들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더 어렵고 송금한 돈이 브로커를 통해 가는 중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젠 송금도 할 수 없다며 속상해 한다.

“지금 작년부터 연락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돈 모다서 보내주고 했는데 글썄 작년부터 지금 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참여자9)

“인제 언제 만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번에도 뭐 두만강 여매 왔었다. 엄마 목소리라도 들어보겠다고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가 있나.” (참여자7)

“병원에 그렇게 코로나가 악화했을 때도 중환자실에 갔을 때 집안에 8일을 가둬두고 바깥에도 못 나가서 나 울고불고. 그냥 울고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참여자10)

5. 삶의 만족과 미래의 무망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남한에 모든 가족이 다 와서 함께 지내는 것에 무엇보다 행복해 하고 손주를 돌보며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다. 또, 가끔은 자녀가 방문해서 챙김을 받는 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어떤 분은 부부가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여겼다.

“여기 와서 애들도 다 돈 벌어서 온 식구 다 데려오고 뭐. 다른 사람들같이 고향에 뭐 자식들 두고 오고 그런디 그래도 난 속은 덜 췌어요. 썩 데려왔으니까.” (참여자3)

“여기 와서 자식과 가까이 사니까 손
주도 다섯 살까지는 계속 내가 봐주고.”
(참여자6)

“그래도 저 우리 둘이는 변함없이 이
렇게 살다 죽으면 되니까.” (참여자11)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

북한에서 치료하지 못해 깊어졌던 병마도 남한에서는 꾸준히 약을 먹으며 병원에 다닐 수 있고, 병원 내방이 늦어지면 의사선생님의 걱정과 배려가 한없이 감사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신보다 더 건강을 챙기며 연락하고 방문하여 운동을 독려하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 하고, 살기 좋은 남한에서는 신경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자신을 이해해 주고 약을 처방받아 먹을 수 있어 만족하다고 하였다.

“내가 북한에 있으면 살았겠어요? 여기 와서 진짜 그 나이 먹고도 모진 병, 글썽 몇 번 쓰러졌어요. 지금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참여자3)

“건강 때문에 또 계속 전화 와요. 건강 하시냐고. 뭐 이게, 뭐 삼천보 걸어라고 시계까지 주고. 그다음 또 저기 뭐야 혈압기까지 오고. 매일 보고하게끔 됐어요. 보건소에다가.” (참여자5)

“밤에 잠 못 자서. 신경과라는 게 있어. 약 타다가 먹어요. 병원에서이 다리가 막 이케 붓고 해서잉. 병원에서 주는

약 먹으니까 다리가 안 붓어요.” (참여자8)

“아저씨가 위암 걸렸으니까. 항암치료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많이 입원하고 그랬다가 좀 괜찮아서. 나도 자궁암 수술했지.” (참여자10)

“병원에 가서 전적으로 혈압약은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타는데 한번 타고 또 너무 오래 있다 가면 선생님이 욕하더라. 이렇게 꿔으면 아이된다 그래.” (참여자11)

만족과 감사의 생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며 그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즐겨하고, 현재의 생활이 궁핍한데도 굶주리며 가난했던 지난 북한 생활에 비하면 남한에서의 일상에 매일매일 감사해 한다. 경제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인간의 기본 생존을 위한 의식주 해결만으로도 그들은 자신이 배려받았다며 더 바랄게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삶을 자족하고자 했다.

“교회 생활은 하니까 그래 집에 그저 있기보다는 낫지요. 돈이야 무슨 주는 거 받아 쓰고. 더 달라 하겠어요 어떻게. 북한에 비하면 여기가 진짜로 이만하면 잘 살고 감사한 일이지.” (참여자1)

“아이고 나는 풍족하지요. 우리는 무사하니까 너무나 고맙죠. 빈 몸으로 와 가

지고 폐를 끼치는 것만으로.” (참여자2)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선 자유가 있는 게 좋아요. 아무 말 해도 막 해도 마음 놓고 해요.” (참여자4)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식주가 다 풀리니까 만세죠 뭐. 그렇잖아요, 의식주 그 세 가지 풀렸는데. 이제 뭘 더 바라겠어요.” (참여자6)

“너무너무 나라 배려도 너무 좋고. 남한은 기차게 좋지 뭐. 나는 이렇게 좋은 거 상상도 못 하고.” (참여자7)

“일할 형편도 못되고 그냥 생계비 딱 요기 얹메 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나라에서 쌀을 주지. 뭐 뭐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니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너무 지상낙원이지 여기야.” (참여자9)

“여기에 무슨 먹을게 많지. 무슨 먹을 거 북한생활에다 대면. 그다음에 여기 오니까 생활이 조건이 다 좋으니까 무슨 별로 힘든 거 우선 애로되는 거 없이 살아왔구만. 그저 우리는 저기 생활하다가 여기 생활에 비쳐서 저기다 대면 하늘과 땅 차이다.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하니까.” (참여자11)

통일에 대한 낙담

북한은 여전히 낙후되어 인간의 기본 의식

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너무 격차가 심해서 통일에 대해 걱정을 앞세웠고, 이젠 그렇게 고대하고 염원하는 통일이 자신의 살아생전에는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낙담하면서 그래도 마음 한 켠에 보고픈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고향이 그리다고 말하였다.

“내가 나이가 좀 젊었다면 언제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죽겠는데. 거기에 남겨진 딸도 보고 가보고도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참여자4)

“아이고. 언제 통일이 될까? 어떤 때는 그저 바쁠 때는 모두 다 가만있었는데 맘 아플 때가 많지 그래도 뭐. 글썄 어카간. 할수 없지.” (참여자10)

“통일이 되면 더 좋은 거 어디다 다 말하겠어. 에이 거 이젠 포기를 해야지. 거기다가 머리를 쓰다 보면 내 신경병이 오겠는 걸 어찌겠어.” (참여자11)

“통일이 언제 되겠어. 통일이 되도 걱정이야. 우리나라 돈이 좀 많아야 거기 좀 건설도 하고. 글썄 (통일되서) 가자면 가지. 간다면 갈 수 있다마는 근테 가서 뭐하겠어요. 가고 싶은 생각 없어.” (참여자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 노인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분석결과를 얻었는데 삶의 경험으로는 총 119개의 의미 진술에서 51개의 구성 의미에 따라 19개의 주제모음을 조직화하였으며, 5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군은 각각 ‘힘들었던 지나온 시간’,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나날들’,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기’, ‘순응하는 현재의 생활’, ‘삶의 만족과 미래의 무망감’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노년의 삶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겪은 빈곤함에 대해 회상하며 죽지 않기 위해 탈북하였고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고난과 남한에서 북한사람으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북한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어 삶의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과 자식의 굶주림을 어찌지 못하는 생활에서 병들고 굶주려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남겨진 북한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남한에 살면서 헤어진 가족을 향한 부모로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가족과 나누고자 생계비를 아껴 북한으로 송금하고, 남한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병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서 손자를 돌보거나 아픈 자식을 돕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비록 굶주림에서는 벗어났지만 남한 땅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과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북한의 가족과 연락마저 어렵게 되고 돈을 송금하는 것조차 불확실하여 답답함을

느꼈다. 이젠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식을 영영 보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잊어야 한다면 순응한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남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도 자식과 손주를 보며 행복해하였고 비록 생계비만으로 살아가기엔 궁핍하지만 그래도 배 곯지 않고 생계 걱정에서 벗어났으니 감사하다고 한다.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국가 지원으로 병원 진료와 치료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죽기 전에 북한의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통일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이젠 더 이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낙담하여 우울함을 떨쳐내지 못하였다.

김승용(2005), 정순돌 등(2015), 정순돌, 박지혜(2014), 이현주 등(2009), 민기채 등(2018), 허옥희의 연구(2019)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에 따른 만족과 사회보장지원으로 인한 기초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는 내용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심층 면담 결과 생계비에 의존하여 노년의 삶을 근근이 이어가는 굶주림 없는 생활의 만족감 그 너머엔 본질적인 삶의 갈망으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더 크고 깊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의 연락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 답답함과 걱정이 앞섰고 살아생전에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낙담하였다.

노년의 나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달리 젊은 나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맞이하는 노후는 더 적응적으로 준비된 노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다. 허옥희(2019)의 연구에서 논의했듯이 저소득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립과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서 현재 노년기를 맞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정착 과정에서 탈북민이라는 열등 처우를 겪어 남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는 활동보다 개별 복지서비스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그래서 찾아가는 개별 복지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노년기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가 지원 및 문화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기초생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부모 세대를 보면서 북한 사회체제에서는 국가에서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에 학습되어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면한 현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빠서 미래를 준비할 생각도 하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북한을 떠나오기 전 굶주렸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와 병원진료의 지원만으로도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 이들의 생활은 궁핍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남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으로 노인들 스스로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셋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대다수인데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아껴 송금하겠다는 일념으로 적은 수입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여전히 가족을 향한 애착함과 그리움에 그 적은 생계비 일부를 아껴서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자신이 남한에서 누리는 행복을 가족과 나누고 부모로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내고 있다. 남한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립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소득 창출의 기회를 갖고 경제적 능력을 고취하여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기에 그들에게 맞는 자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아픈 감정들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이 커서 사회적 관계 활동에 활발한 참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겐 노년기를 맞아 다양한 심리적 증후군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잘 준비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종교활동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노년기의 과업을 이루어 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은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서 모든 북한이탈주민 노년의 삶의 경험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미 노년의 나이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로 선택하였는데 이를 구분한 연구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과 남한 거주 지역 특성에 따른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심층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초고령사회(post aged)에 진입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도 고령화되어가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한에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의 심리적 욕구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에 대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년기의 삶에 대한 실천적 근거를 탐색하여 질적연구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노년기의 북한이탈주민의 궁핍한 환경에서 이들의 욕구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관계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지역 사회 실천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센터에서 노인 문화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심층적 상담으로 개입하고 지원하여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북한이탈주민 노년의 삶은 국가의 생계급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북한에서의 굶주림을 벗어났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궁핍하여 질병과 정신적 치료에 취약한 상태로 단지 의식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

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 노년기를 보내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탄력적 지원방식으로 제도적 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수현 (2013).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신체적 건강,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1), 53-66.
- 김승용 (2005). 북한이탈노인의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 *진리논단*, 10(2), 11-33.
- 김희경 (2012).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회*, 32(3), 819-834.
- 민기채, 고혜진, 박정순, 김예슬, 한경훈 (2017).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실태 및 지원 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291-318.
- 박정순, 김예슬, 한경훈 (2018).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한국사회정책연구*, 25(1), 161-194.
<https://doi.org/10.17000/kspr.25.1.201803.161>
- 배나래, 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2010).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

- 업연구, 7(1), 37-58.
- 서윤환, 정순돌 (2012).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김수암, 이석, 안혜영, 윤여상 (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 이현주, 오보람, 이은혜 (2009). 북한이탈여성 노인의 남한사회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1501-1520.
- 정순돌, 김고은, 박지혜 (2015). 탈북 중 고령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고독감의 매개 효과. 한국노년학, 35(1), 207-224.
- 정순돌, 박지혜 (2014). 탈북 중 · 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보건사회연구, 34(1), 105-132.
<https://doi.org/10.15709/hswr.2014.34.1.105>
- 정순돌, 이선희 (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도(1994, 2004, 2008년) 결과비교. 한국노년학, 31(4), 1229-1246.
- 조성희, 김정귀 (202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선행과제. 한 국민간경비학회보, 20(5), 215-242.
- 최현석, 하정철 (2012). 노인의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1), 131-142.
- 통일부. (2021). 2020 북한이탈주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에서 2021년 12월 18일 인출
- 허옥희 (2019). 중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인식에 관한 탐색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1), 89-110.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150-3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1 차원고접수 : 2022. 04. 19.
수정원고접수 : 2022. 06. 01.
최종게재결정 : 2022. 06. 27.

A Study on the Older Age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ae, Mi Rang

College of Basic & General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 a phenomenological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North Korean defectors aged 65 or older who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5 years.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Colaizzi was classified into 16 themes and 5 theme groups according to 51 composition meanings. The five theme groups were 'The past difficult time', 'Days of nostalgia for home and family', 'Hang in and hold in', 'The present life of acceptance', and 'Life satisfaction and future hopeles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were satisfied and grateful for their current life, which is dependent on living expenses and no longer hungry. However, to share the happiness that he enjoys with his family while missing his family, he was living in North Korea by saving his living expenses at an old age without economic ability. Because of COVID-19, it was difficult to contact North Korean families, and he was frustrated that he could not expect unification in his lifetime. Practical and policy interventions are propos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old age.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old people, life, qualitative research